

哲學 意義와 範圍 (五)

韓稚振

宗教, 習慣, 社會, 制度를 研究하는데도 統計法과 比較法을 使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事實 自體를 崇拜하고 抽象的 思索은 더욱 輕視하게 되었다. 科學은 一切 事實을 單純明瞭하게 敍述할 것 뿐이다. 自然과 人生이 進行되는 그대로 分明히 記述할 것 뿐이다.

그러나 一切 經驗을 結合하고 統一하려는 우리의 固有한 要求는 以上과 가튼 一部分의 科學智識을 아는데 滿足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慾望은 自然을 記述하는데 긋치지 안코 그것의 意義를 解釋하려고 한다. 이 自然萬象의 意義는 그 全體를 論究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엇더한 事實이든 지 우리의 心理를 通過하여서만 認識될 수 잇는 故로 모든 科學的 研究는 心理의 影響을 맞은 後에 決定되는 것이다. 科學 自體로 말하드래도 無組織한 事實을 敍述함으로써 滿足하지 못할 것이다. 科學은 事物의 法則을 發見하려 한다. 이런 故로 科學은 全體 事實을 研究하여야 그 一貫하는 法則을 發見할 수 잇는 것이다.

近者에 여러 科學家들은 自然科學의 事實에 基礎하여 綜合的 宇宙觀의 體系를 樹立하여야 할 것을 主義하며 特히 自我의 性質을 徹底히 理解할 必要가 잇다는 것을 覺悟한다. 獨逸에 有名한 唯物論者 『헉켈[헤켈]』과 化學家 『오스발트』 가튼 이는 自然哲學에 對하여 統括的 宇宙觀을 論한 바 잇섯고, 헤-겔과 허-더[헤르더] 가튼 歷史哲學家들은 歷史의 事實만 蒐集하는 것으로 滿足하지 아니하고 그 統一的 意義와 解釋을 主張하였다. 이리하여 歷史는 以前보다 廣大하고 具體的 基礎에 樹立하게 되었다. 特히 『칸트』 以後에 哲學家들은 智識의 根據를 研究하는 것이 必要한 思考 部門으로 알엇고 特殊 科學家들은 漸次 모든 人生의 知識은 同一한 目的과 根據를 가졌다는 것을 覺悟하게 되었다. 哲學과 科學은 共通한 目的을 가지고 智識을 擴張하여 人生 生活을 豊富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哲學과 諸科學은 實際 生活의 要求에 依하여 發生한 것이 다 眞理의 發見을 目的하는 것이다. 近者에 와서 眞理는 事實과 思考와의 單純한 靜的 關係로서 永久不變할 것이라고 생각지 안이 한다. 만흔 學者들은 眞理를 가라쳐 生活을 指導하고 完全케 하는 動的力으로 看做한다. 一個 判斷은 우리의 生活을 指導하고 自然環境을 支配하는 能力이 잇서야 眞理가 된다는 것이다. 不然이면 非眞理이다. 科學이 眞理를 發見하여 實際生活을 補助하고 充實케 하려고 發生한 것과 가티 哲學도 閒暇하게 內觀이나 默想에 긋치지 안코 사람의 生活 理想을 賢明히 指導하는 實際的 努力이 되지 안이 하면 안된다.

萬一 哲學과 科學이 共通한 目的을 가지고 彼此 握手 할 수 잇다면 兩者의 差異點은 무엇인가 하는 質問이 니러날 것이다. 現代의 哲學은 科學에 基礎를 두고 그 研究方法을 取하나니 이 點에 잇서서 哲學과 科學은 同一하다. 그러나 哲學은 科學과 가티 事實을 敍述하는 外에 그 事實의 意義를 解釋한다. 哲學은 世界觀을 樹立하는 가운데 事實的 經驗을 整理할 쏜만 안이라 空想과 想像力에 依하여 超現實的 理想界를 建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럼으로 哲學家는 科學的 觀察力이 잇서야 하는 外에 藝術的 創造力이 잇어야 한다. 또한 道德的 勇氣도 잇서야 諸般 非難을 익이고 徹頭徹尾한 宇宙觀을 建設할 수 잇다.

哲學과 科學의 普遍 差異는 前者는 綜合的, 解釋的, 理想的, 包括的이요 後者는 分析的, 敍述的, 事實的, 部分的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科學은 『이것은 무엇인가』하는 問題를 解結하러 하고, 哲學은 『왜 이것은 이러한가』하는 問題를 解結하러 한다. 哲學은 過去와 現在의 모든 事實과 傾向을 考察하여 人生의 向上 發展할 運命과 理想을 指示한다. 哲學은 部分的 事實을 避하고 全體 事實을 取扱하는데 잇서서 哲學은 科學보다 具體的이요 組織的이다.